

'왜?' 라는 질문을 남긴 _____ 소설 《살라미나스의 군인들》과 영화

고혜선 |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20세기에 영화가 등장하면서 많은 이들은 '이제 소설의 시대는 갔다' 라면서 소설의 종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상이라는 매체 안에서 펼쳐지는 사실 혹은 허구를 조합한 세계가 역시 허구에 바탕을 둔 사실 같은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소설보다 더욱더 사실적이며 생생하므로 소설을 읽는 노력보다는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견한 주장이다.

그러나 스페인 작가 하비에르 세르카스 Javier Cercas는 "소설은 현존하는 장르 중에서 작가 마음대로 가장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장르로 소설이 태어난 시점부터 늘 지속되던 담론이 소설의 죽음이었으나, 소설은 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한다. 굳이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21세기 현재까지 소설은 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소설과 영화가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칠레 작가 안토니오 스킨메타 Antonio Skarmeta의 《우편 배달부》가 영화로 소개되지 않았더라면 원작이 한국독자에게 알려졌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역자 권미선의 말에 의하면 원작을 번역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일체의 반응이 없었다 한다. 그러나 곧 영화가 상영되고 인기를 끌자 출판재의가 붓물처럼 쏟아졌다 한다. 한국에서의 《우편 배달부》는 영화 덕분에 소설이 소개된 좋은 예이다. 물론 원작자 스킨메타가 자신의 작품이 영화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소설을 쓴 것은 아니다.

반면, 어떤 작가들은 아예 영화화할 것을 전제로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소설을 쓰기도 한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칠레 작가 안토니오 스킨메타 Antonio Skarmeta의 《우편 배달부》가 영화로 소개되지 않았더라면 원작이 한국독자에게 알려졌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역자 권미선의 말에 의하면 원작을 번역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일체의 반응이 없었다 한다. 그러나 곧 영화가 상영되고 인기를 끌자 출판재의가 붓물처럼 쏟아졌다 한다.

한국에도 소개된 영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원작자 라우라 에스키벨 Laura Esquivel은 이미 영화화할 것을 전제로 글을 쓰는 작가로 유명하다. 영화 덕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녀 소설들의 문학성에 대한 현지 평단의 반응은 늘 냉랭하고 비판적이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영화 덕분에 소설이 번역되었으니 중남미 문학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하비에르 세르카스(1962~)는 한국에서는 미지의 인물이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강의 하기도 한 세르카스는 현재 히로나 대학교의 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7년 《모빌》이라는 단편집으로 데뷔한 후, 소설 《세든 사람》(1989), 《고래의 뱃속》(1997)에 이어 《살라미나스의 군인들》(2001)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이 소설로 국내외의 수많은 문학상을 거머쥐었다. 그 밖에도 신문에 기고된 글을 모은 《Una buena temporada》(1998)가 있다. 출판된 지 1년 만

에 25쇄를 찍을 정도로 인기를 누린 《살라미나스의 군인들》은 2003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욱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스카상 외국영화상 출품작으로 결정되었다. 예년과 달리 2월에 개최되는 올해 시상식에서 감독 트루에바 Trueba가 최우수 외국영화상을 수상하러 시상대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면서 최근 자 스페인 신문들은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소설은 스페인 사람들의 뇌리에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은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내란을 재구성했다. 스페인 내란은 제2공화국의 인민전선 人民戰線 정부에 대항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군부를 주축으로 한 반란군인 파시스트적 팔랑헤당과 호진적 무정부주의인 공화파가 격돌한 전쟁이었다. 이 내란에서 파시스트들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제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화파는 유럽과 미국, 소련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학자들은 국제적인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전쟁으로 보기도 한다. 내란은 결국 프랑코가 이끄는 국가주의자들의 팔랑헤당 승리로 끝나며, 전후 프랑코는 스페인의 독재자로 남게 되고 수많은 지식인들은 프랑스, 중남미와 미국으로 망명길을 택한다. 내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현재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중에는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와 같은 저명 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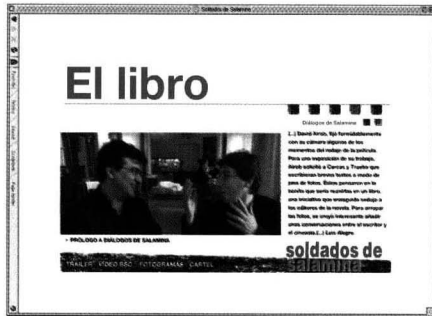
따라서 스페인 일반 국민들은 팔랑헤당이나 프랑코에 대해 결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내란을 다룬 작품들도 대부분이 공화파에 대한 우호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스페인 작가는 아니지만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스페인 내란을 공화파와 미국 출신 자원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



위에서 예로 든 하비에르 세르카스(1962~)는 한국에서는 미지의 인물이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 세르카스는 현재 히로나 대학교의 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살라미나스의 군인들》은 바로 일반인의 뇌리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은 팔랑헤당의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이다. 즉, 별로 유명하지 않은 문인으로 팔랑헤당의 핵심 이론주의자였던 라파엘 산체스 마사스 Rafael Sanchez Mazas가 공화파 군대의 총살 명령으로 거의 죽을 뻔했으나 한 무명군인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는 실화가 소설의 모티브로 등장하며, 작가 하비에르 세르카스는 자신의 이름과 동명인 하비에르 세르카스라는 기자를 내세워 이 사건을 중심으로 스페인 내란을 추적해 가며 재구성했다.

내란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팔랑헤의 국가주의자 군대는 카탈루냐 지방으로 총 진격을 시도한다. 공화파 군대는 프랑스 국경 쪽으로 전면 퇴각하면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다리와 통신망을 파



《살라미나스의 군인들》은 2003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욱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스카상 외국영화상 출품작으로 결정되었다. 예년과 달리 2월에 개최되는 올해 시상식에서 감독 트루에바 Trueba가 최우수 외국영화상을 수상하려 시상대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면서 최근 자 스페인 신문들은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피한다. 혼란의 와중에서 그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 있던 팔랑헤 국가주의자 죄수들을 집단 총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바로 이 때 바르셀로나 감옥에는 팔랑헤당의 창설자이며 당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한 산체스 마사스가 죄수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산체스 마사스는 집단 총살현장에서 살아남아도 망쳤다. 공화파 군대는 그를 찾아내기 위해 수색을 시작한다. 잡초 뒤에 몸을 숨긴 산체스 마사스를 군인 하나가 발견한다. 수색대장은 군인에게 “뭘 찾아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공화파 군인은 산체스 마사스의 얼굴에 눈을 고정시키고 “아무도 없다”는 대답을 건넨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소설의 1부이다. 소설의 2부는 전쟁이 끝난 후의 삶이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산체스 마사스는 이들에게 은혜를 갚지만, 그의 목숨을 구했던 무명의 군인은 찾을 길이 없다. 3부에서는 칠레 작가 볼라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화자인 기자는 그를 통해 미라예스 Miralles라는 인물의 일생을 알게 된다. 미라예스는 집단학살을 단행한 부대의 일원이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산체스 마사스를 살려준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미라예스와 그의 동료들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알제리 인근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자 프랑스 외인부대에 자원해서 여러 전투에 참여했다. 하비에르 세르카스 기사는 이 인물이 산체스 마사스를 살려준 무명의 군인일 것으로 확신하고 그의 뒤를 추적한다. 그러나 그가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고 디용에 살았으며 80여세의 인물이라는 것만을 알아냈을 뿐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산체스 마사스를 살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그를 만나서 기자가 묻고 싶은 것은 단 한마디이다.

“왜?”

영화 《살라미나스의 군인들》은 소설 속 화자인 남자 기자를 여자로 대치했을 뿐 나머지는 소설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살라미나스의 군인들》도 《우편 배달부》나 《달콤 씹서름한 초콜릿》처럼 영화가 먼저 수입될지, 아니면 소설이 먼저 번역될지 궁금해진다. ☞

이 글을 쓴 고혜선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인스티투토 카로이 쿠에르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오리건 주립대학교 스페인어과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어문학부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동서양문학에 나타난 거울의 이미지 El espejo en la Lit. Occidental》(페루), 《메스티소의 나라들》 등이 있으며 《마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베의 가족》, 《젊은 날의 초상》 등 우리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겼다.